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 등 여건변화에 따른 한반도의 정세흐름 파악을 위한 출장 복명서

2016. 12. 28.

I. 출장개요

1. 출장배경 및 목적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안보라인 진용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북핵 문제를 포함하여 향후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있어 다소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
- 이미 미국 대선을 즈음하여 지난 11월중 미국 워싱턴에서 KDI/PIIE 공동 주관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북한의 장마당 환율, 그리고 대북경제 제재에 대한 다양한 수단 등을 주제로 한 북한경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으나, 대선 이후 진용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차기 정부 인수팀이 어떠한 대북 정책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에 관해 좀 더 업데이트할 필요성 제기
- 이를 위해 미국 UN주재 우리 대표부와 뉴욕 주재 총영사관의 고위급 관계자, 워싱턴 소재 주미 대사관 고위급 인사, 그리고 IMF/World Bank 전문가 등을 면담하고, 향후 우리의 대북문제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 내 관계전문가 그룹과의 네트워킹을 구축하는 한편, 각급 박물관(국가안보, 민주주의, 국제 시사문제, 문화·과학을 포함한 국민의 생활의 질 등 관련) 견학 활동을 추진토록 함.

2. 출장개요

- 기 간: 2016년 12월 9일(금) ~ 12월 19일(월), 출·입국일 포함
- 출장지: 워싱턴, 뉴욕 (미국)
- 출장자 (총 2인)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	한승희	KDI School 교수/지식협력단지추진단 부단장	연구방향 설정 및 진행
2	선종인	KDI 지식협력단지추진단 운영기획팀 전문연구원	연구 보조 및 운영

3. 세부일정

시 간	일 정	비 고
12월 9일(금): 뉴욕 도착, 1일차		
10:00	인천국제공항 출발	KE0081
9일(금), 10:00	뉴욕 JFK 공항 도착	
10:00~13:00	호텔 이동 및 체크인, 휴식	
13:00~14:30	점심식사	
15:30~18:00	Rockefeller Center, Empire State Building 견학	
12월 10일(토): 2일차		
11:00~13:00	뉴욕 총영사관 미팅: 차기 미국정부의 외교정책 방향 및 배경 논의	
13:00~14:30	점심간담회	
15:30~17:00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시찰	
12월 11일(일): 3일차		
10:00~11:30	St. Patrick's Cathedral 견학	
12:00~15:00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시찰	
15:00~16:00	점심식사	
12월 12일(월): 4일차		
11:30~13:30	UN본부 견학: 최근 세계이슈 및 UN agenda 파악	
13:30~15:00	점심식사	
15:00~16:30	주 UN대표부 미팅: UN 안보리 대북 제재안 채택 등 관련	
17:30~19:00	저녁 간담회	
12월 13일(화): 워싱턴 도착, 5일차		
10:00~13:00	Museum of Mathematics 시찰	
13:00~14:00	점심식사	
14:00~15:30	호텔 체크인 및 공항 이동	
16:55	뉴욕 JFK 공항 출발	B61407
18:16	워싱턴D.C. IAD 공항 도착	
19:30~20:30	저녁간담회	
20:30~	호텔 이동 및 체크인	
12월 14일(수): 6일차		
11:00~14:00	IMF 관계자 면담 및 점심 간담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의 미국 등 세계경제 전망 관련 의견 청취	
14:30~16:00	점심식사	
18:30~21:00	IMF·WB·IDB의 한국정부 파견자, 현지인 staff 등의 만찬모임 참석	
12월 15일(목): 7일차		

시 간	일 정	비 고
10:00~13:00	Johns Hopkins 국제관계대학원(SAIS): 한·미 간 북한 문제 공조 방안과 관련한 미국내 주요 전문가 시각 탐문	
13:00~14:30	점심 간담회	
15:00~17:00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 Culture	
17:00~18:30	미국 파견 기재부 등 정부관계자 저녁 간담회	
12월 16일(금): 8일차		
11:00~13:00	주 미국대사 미팅 및 점심 간담회: 트럼프 신정부 출범 이후에 있어 외교정책 등의 기초 전망	
13:30~14:30	점심 간담회	
15:00~16:30	The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시찰	
17:00~18:00	National Geographic Museum 시찰	
12월 17일(토): 9일차		
10:30~13:30	Newseum 시찰	
13:30~15:00	점심식사	
15:00~18:00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시찰	
18:30~20:00	저녁간담회	
12월 18일(일): 워싱턴D.C 출발~ 19일(월) 인천국제공항 도착		
08:00~	체크아웃 후 공항이동	
18일(일)11:50	워싱턴D.C. IAD 공항 출발	KE0094
19일(월)16:30	인천국제공항 도착	

4. 주요 면담자(가나다 순)

	성 명	소 속 및 직 위	비 고
1	구연희	World Bank 파견 교육부 국장	
2	김경희	미국 Georgetown 대학교 파견 기획재정부 국장	
3	김기범	IMF Advisor to the Executive Director	
4	김성욱	주 뉴욕 총영사관 재경관	
5	김준일	IMF 근무 staff	
6	김희정	World Bank Alternate Executive Director	
7	박문경	World Bank Consultant	
8	박일영	IMF Senior Advisor to the Executive Director	
9	박주영	World Bank Senior Financial Officer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0	신수경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워싱턴지부 대표	
11	신수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12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관 대사	
13	유형철	IDB 파견 기획재정부 국장	
14	윤정식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교 교환교수	
15	이광연	IFC Consultant	
16	이용재	World Bank 파견 기획재정부 국장	
17	이재우	IMF Asia and Pacific Department Deputy Division Chief	
18	이창용	IMF Director	
19	장문선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교 파견 기획재정부 과장	
20	장호현	주미 한국대사관 경제공사	
21	최희남	IMF 이사	
22	한충희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차석대사	
23	Hyung K. Ahn	IFC Trade and Commodities Financial Institutions Group의 Global Head	
24	Jae Ku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교 소장	
25	Jeffrey Lee	World Bank Investment Officer	
26	Joel Witt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교 교수	
27	Kenneth Gang	IMF Consultant	
28	Mrak Plant	IMF Consultant	
29	Oleh Vovk	UN공보부	
30	Rene Mbui	UN사무국	

II. 출장주요내용

□ 도널드 트럼프 당선과 관련한 미국내 주요 여론동향 등

- 민주당 정권 시절에 워싱턴 정치가 국민의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생겨난 미국인들의 분노가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공화당의 트럼프를 최종 승자로 밀어 올렸다는 시각이 관찰
 - 미국인으로서 자존감은 있으나 삶의 영위가 어려운 계층 중 특히 중년, 고졸, 백인남성*들(앵그리 화이트)의 사회불만이 커지면서, 이는 결국 사회문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는 것으로 감지
- * 남성: 53%, 백인: 58%(전체 유권자의 70%가 백인), 40~49세: 50%, 50~60세: 53%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
- Spanish 불법이민에 대한 반감이 높아 이러한 이민 정책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동맹의 틀을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더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구상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에 지지도가 높았다는 평



사진: CNN Politics Campaign 2016, Newseum(뉴지움) 전시

□ 도널드 트럼프 당선 후 국제정치, 세계경제 등의 주요 동향

- 트럼프 당선 확정 후 국·내외 적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와 맞먹는 수준으로 경제쇼크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국제유가 등의 움직임이 비교적 빠르게 원상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시현
 - 국제유가는 배럴당 \$44.398로 마감되었던 WTI(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개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하락(약 4% 하락)하여 \$43로 마감되었고, 미국 주식 선물가는 제한폭까지 하락

- 국내에서는 트럼프 쇼크로 외국인과 개인이 많은 물량을 순매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증가 대비 45포인트 떨어진 1950선까지 폭락했다가 하루 만에 원년 회복
- 한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의 선거공약으로 말미암아 외교, 정치, 경제 정책 등을 수립함에 있어 다각도에 걸친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
 -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한국이 100% 부담하는 등 동맹으로서의 의무를 좀 더 충실히 하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보인 점은 그 공약의 이행 추이 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성 제기
 - 무역 정책에서는 FTA의 전면 재협상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많은 미국인의 일자리가 한미 FTA로 인해 사라졌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 자유무역 협정의 수정을 요구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체계적인 대비를 할 필요
 - 단,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과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은 우리 정부의 기조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감지

□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전문가 견해

- 외교경험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 비(非)정치권 출신의 외교정책은 ‘과격’에 가까우며, 부시 정권부터 오바마 행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고수해 온 ‘고립·압박’ 중심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표명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의 대화할 수 있다는 등의 언급을 통해 유연한 입장을 제시하고, 미국이 주도하던 대북 압박 정책을 중국 주도가 되도록 하겠다거나, 한국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북핵방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
 - 그러나, 미국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나라이기에 집권당이 변한다고 해서 미국 본토를 위협할 지경에 이르고 있는 북한 핵을 용인할 국가는 아니라는 의견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
- 한국 정부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 인사들과의 다양한 접촉 계기에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의 긴밀한 협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대해 서로 ‘100%’ 동의하고 있는 상황
 - 한미동맹 기반의 양국관계와 대한방위 공약, 북핵대응 협력을 확인함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었던 안보 리스크 우려를 떨쳐내고 미국 새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구축에 속도가 붙었다는 시각도 있음

-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이 현재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며, 미국은 한국과 끝까지 함께하며 흔들리지 않을 것’ 이라는 의견을 밝혀 트럼프 행정부 초기 정책에 큰 변화를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과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전반적으로 예상하고 있음.
 - 트럼프 당선인이 예측 불가능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동시에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한 것은 새로운 기회로 이어지는 통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예측됨.
 - 단,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입장(시각)에 따라 대북정책의 방향이 크게 좌우될 것이며, 아직까지는 주목할 만한 아시아 정책 자문관을 내세운 적이 없는 점을 비추어 보아 대북정책에 대한 속단은 이르다는 것이 우세한 의견임.

[참고] 트럼프 '3G*' 내각 특징

* 군 장성(Generals), 투자은행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출신, 초갑부(Gazillionaire)

-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대 내각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추진
 - 각료 15명 중 13명 지명
 - 평균 연령: 64세
 - 13명 중 남성 11명, 여성 2명(백인 11명, 흑인 1명, 아시아계 1명, 히스패닉 0명)
 - 총재산 140억 달러(약 16조 4000억원) 이상
 - 초갑부 3명(국무·상무·교육, 재산 1,000억원 이상)
 - 장군 출신 3명(국방·내부·국토안보)
- 공직경험이 없는 새 얼굴이 대거 입각하면서 트럼프 대선 공약의 핵심이었던 '워싱턴 정치 혁신'의 도래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함.
- 장관 내정자 명단
 - 내무장관: 라이언 징크(하원의원, 前 네이비 실 사령관)
 - 국토안보장관: 존 켈리(前 남부군 사령관, 前 제1해병원정군 사령관)
 - 노동장관: 앤드루 퍼즈더(CKE레스토랑 CEO)
 - 보건복지장관: 톰 프라이스(하원의원, 정형외과 의사 출신)
 - 주택도시개발장관: 벤 카슨(신경외과 의사, 재산 2600만 달러)
 - 교통장관: 일레인 차오(前 노동장관, 대만계, 가족 재산 2,280만 달러)
 - 교육장관: 벤티 디보스(학교 선택권 확대지지, 가족재산 51억 달러)
 - 에너지장관: 릭 페리(前 텍사스주 주지사)
 - 농부장관, 보훈장관: 미정

자료출처: '아웃사이더·갑부·백인.. 트럼프 닳은꼴 내각', 중앙일보 2016.12.15

- 미국 내 주재하고 있는 한국인 전문가들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내각의 의견을 듣지 않고는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만큼 공약과 실제 정책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음.
- 트럼프는 방위 부담금을 한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공약을 내세웠으나 부담금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임을 간과한 주장임.
- * 주한미군의 주둔은 초창기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는데 기여했다면 지금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전략적 유연성(아시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파견이 용이한 한국을 주둔지역으로 택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한 미군의 주둔이 한국을 위한 것만은 아닌 것을 의미함.
- 일부 미국의 역할을 중국으로 넘기는 것을 고려하나, 중국은 국제적 norm(인권보장, 언론자유, 금융자유 등)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안보 및 북핵문제에 대한 조연자 역할 이상은 어려운 상황. 따라서 미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발휘해야 함.
-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방위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김정은을 직접 만날 것이다’ 등의 발언은 보수적이고 북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공화당의 정당정책과 맞물려 현실성이 없음.

□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등 관련

- 2016년 3월 2일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며, 과거 3차례의 북한핵실험에 대응해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1718호, 1874호, 2094호)에 이은 4번째 대북제재 결의안(2270호) 채택
- 주요 수입원인 석탄, 철, 철광에 대해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함. 대(對) 이란 제재와 달리 원유는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신 항공유는 인도주의적 목적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판매와 공급 금지
- 무기거래 분야에서는 기존의 대북제재 결의에서 허용했던 소형무기 수입까지 일절 금지시키는 전면적 무기 금수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물품의 거래를 불허하여 북한의 무기 생산 억제
- 제3국에 새로운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기존의 지점도 90일 안에 폐쇄하고 모든 거래 활동을 강제 종료하도록 하며,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여 금융제재 및 운송 봉쇄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련된 60개(기존 32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해외 자산 동결, 여행금지 조치, 해외 사무소 폐쇄,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외국인 추방 등의 조치

-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제재하는 새 대북 제재 결의안(UN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을 만장일치로 채택
 - 가장 핵심은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허용되었던 ‘민생 목적’의 석탄 수출 제한이며 따라서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 규모는 2015년 수출액의 38% 수준으로 제한됨.
 - 은, 동,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새롭게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되었으며, 북한의 중요 수입원인 대형 조각상의 수출을 봉쇄하고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을 줄이는 내용도 함께 포함됨.
 - 이전 결의안 채택 직후 북한은 방사포 발사 등 무력시위를 통해 긴장 수위를 끌어 올린 적이 있으나, 이번에는 유엔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한이 성급하게 도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사진: UN(유엔) 전시물 및 UN안보리 회의장 촬영

-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어 UN의 대표로 선출된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한반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Bridge Role에 관심을 두고 있어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함.

□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SAIS) 내 한반도 등 국제문제 전문 연구소

- SAIS는 1943년에 설립돼 국제관계, 경제, 외교, 정책연구 및 교육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학원으로, 외교정책분야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5% 이상이 외교정책 분야의 가장 뛰어난 대학원으로 SAIS를 선택
 - U.S.-Korea Institute at SAIS는 SAIS 내부에 한국기관으로부터 Funding을 받

아 설립된 조직으로 60~70%가 중국연구로 치중되어 있는 국제지역 연구를 한국 관련 정보의 공유, 이해, 외교적 자료 제공 등을 위해 2006년 설립

-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정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전문적인 manpower의 부재로 이를 보완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북한 관련 이슈 발생 시 정보제공, 대응방안 모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미국 연구소의 보고서를 Fact로 간주하는 미의회, 미 중앙정부 등의 관례에 맞추어 현재는 북한관련 연구 보고서를 SAIS의 이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따라서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는 범위가 넓어졌으며,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 및 비판 등이 가능한 수준까지 와 있음.
- 대선전후 각급 TV 토론회가 다양하게 개최되었는바, 미국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종래 미국의 대북정책과 큰 차이가 없을 것(50%)이라는 의견, 약간의 수정·보완이 있을 것(30~40%),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이 제시될 것(10%) 등의 순으로 의견이 제시되었음.
- 하지만, 변화가 없다 하여도 국제질서를 좌우하는 superpower인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통일·북핵문제의 해결 등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에 DPRK 포럼(비공개 미팅), 한국 국회 사무처 등과의 지속적인 공조가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음



사진: SAIS 내 한국연구소 및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지 1면에 게재된 북한 관련 기사 촬영

□ 내년 초 한미관계에 대한 전문가 의견 관련

-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는 출범 100일 내에 북한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액션 플랜을 준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과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조엘위트 선임연구원은 이란식 제재, 선제 타격,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등 비핵화 추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액션 플랜*을 작성할 것을 제안함.

* 1월 중순까지 트럼프 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언급을 해야 하며, 1월 말 한국 정부와 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에 대한 의논을 진행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2월 초에는 북미 탐색 대화, 2월 중순에는 한미 합동훈련 수정 및 축소 결정,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참여, 3월 중순에는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 계획 발표 등

○ 한미관계는 2017년이 ‘골든타임’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

- 미국 내 의원들과 국민들 간에는 트럼프의 선거공약과 외교정책 등에 대해 반감을 표명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 트럼프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민자 추방과 경제회복 등의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착수하고, 북핵문제 및 한반도 안정화는 그런 연후에 다루게 될 확률이 높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 후 6개월~1년간은 한국 정부의 역할이 중요
- 따라서,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화 전개, 그리고 무엇보다 복잡하고 위협에 빠져있는 한국 정부의 빠른 체제 정비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시급한 이슈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구성되고 실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는 것만큼의 급작스런 변화가 발생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우려나 비관적 견해는 지양할 필요

□ 미국의 새 행정부 시대, 대북문제 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유관기관 시찰

-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및 역할: 국립 미국사박물관(The National Museum of American History)



미국의 역대 대통령 전시물

대통령 이름을 딴 길 이름

-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68년(12월 10일)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UN이 바라보는 인권의 현실: UN본부(United Nations Headquarters)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목표

인권에 대한 아이들의 생각 전시



기본적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UN의 회의 장면

○ 언론의 자유와 정치의 연계에 대한 연구: 뉴지움(Newseum, 언론박물관)

<p>전세계 언론의 자유를 나타내는 전시물</p>	<p>언론의 자유가 전혀 없는 북한</p>
<p>WHY NORTH KOREA'S PRESS IS THE LEAST FREE IN THE WORLD North Korea is home to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regimes. All media outlets are run by the state, and journalists serve as mouthpieces for the ruling Workers' Party. North Koreans caught listening to foreign news broadcasts risk harsh punishments, including forced labor and execution.</p>	<p>A Secretive State Getting news out of North Korea is challenging. Foreign journalists routinely have their cellphones seized upon arrival and are constantly monitored and prevented from talking to people on the street. But reporters manage to reveal news about life under the regime using both sanctioned and undercover methods.</p> <p>▲ About one in 10 North Koreans own a government-issued cellphone, but webpages block global internet access. Three North Korean women were executed for using smuggled cellphones to distribute copies of a banned South Korean song upon its 2015 release in their country. (The Associated Press)</p> <p>▲ In 2016, South Korea used satellites to broadcast democracy propaganda across the border after North Korea claimed it had successfully tested a hydrogen bomb. (The Washington Post)</p> <p>Foreign Media Forbidden State-owned news outlets dominate North Korea's media scene, including Rodong Jomun, the newspaper of the ruling Workers' Party, and Korean Central TV. Internet access is rare and strictly controlled. Foreign media is forbidden but is smuggled into the country on DVDs and thumb drives.</p> <p>▲ Thousands of North Korean soldiers participated in a military parade celebrat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ruling Workers' Party in 2015. (The Associated Press)</p> <p>▲ In 2015, ABC News offered an incentive — though filtered — glimpse of North Korea with 100,000 degrees virtual reality tour of the isolated state. Government censors limited the tour's length, access and connections with North Koreans. (AP Photo/ABC News)</p>
<p>'Worst For Press Freedom' 전시물</p>	<p>북한의 군사, 정치, 언론에 대한 전시물</p>

○ 북한 인권문제, 탈북자문제 등 우리세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The United States Holocaust Memorial Museum)

<p>나치 정권의 확산</p>	<p>나치 정권의 패망: 독재정권의 결말</p>
<p>The shipping container in this room links via Internet to refugees living in Jordan, Iraq, and Germany.</p> <p>Inside, you will meet and talk face-to-face, in real time, with someone there in a similar container — someone who has been forced to flee home because of persecution and violence.</p> <p>#99Percent #HolocaustMuseum www.ushmm.org/99percent</p>	
<p>난민촌(좌측)과 홀로코스트 내(우측 사진) 인터뷰 룸을 연결하여 실시간 의견 교류</p>	

-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북한 등 테러집단에 대처하는 세계시민의 역할: 9/11 추모박물관(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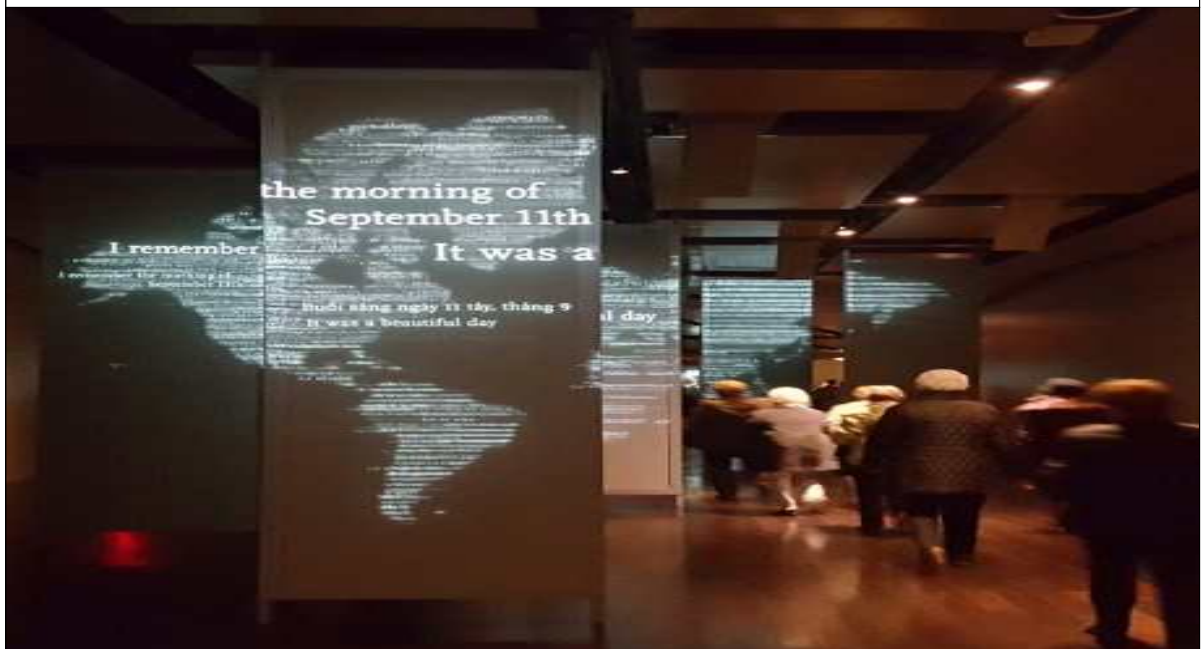
9/11테러의 동선 전시물



구겨진 소방차 실물



'시간의 흐름이 결코 당신에 대한 기억을 지우지 못하리' 라는 메인 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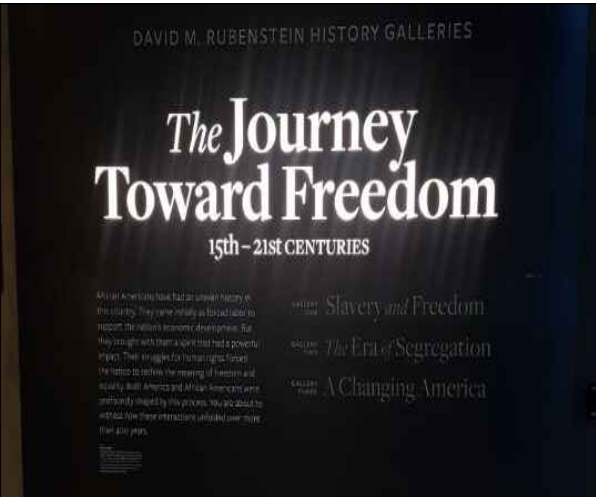


세계지도에 나타나는 9/11 테러 당시의 상황들과 음성들

- 도널드 트럼프 새 정부의 인권정책, 이민자 정책방향 등: 미국 흑인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 Culture)



변화할 수 있는 미국에 대한 믿음



자유를 갈망했던 그들의 노력 전시



6.25 전쟁에 참전한 흑인들의 역사



자신들의 역사에 진지하게 임하는 시민들